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세종복지재단

발행일 2018년 06월

발행인 김미정

함께하는
세계의 이야기

Vol.4

Contents

인사의 글	03
재단소식	04
- 제2회 하나되기 체육대회	04
복지촌 소식	06
- 평창의 감동	06
- 우리들의 활동	08
- 자원봉사자&후원자와의 만남	10
- 교육 이야기	12
- 직원과의 만남	14
- 족부인솔로 지키는 발 건강	15
작업장 소식	16
후원&자원봉사 소식	17



인사의 글



대표이사 김미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의 기운이 점점 강해지는 6월의 끝자락.
한층 강해진 햇살에 초록은 더 푸르러 갑니다.
싱그러운 초록처럼 새로운 희망의 기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한해 보살펴주신 모든 분들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세중복지재단도 날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외되고 그늘진 우리 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써주시고, 늘 사랑과
관심으로 세중복지재단의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
군위군수님 이하 관내 모든 분들께도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지난 한해 우리 세중복지재단 가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세중복지재단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 덕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중복지재단은 한마음 한뜻으로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인생을 잘 영위하려면 여러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야 오랫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 간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더 나은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해에도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 더욱 더 발전되는
세중복지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 제2회 하나되기 체육대회



세종복지재단(대표이사 김미정)에서는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4월19일 기념식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용인 및 지역주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1부 기념식과 2부 하나되기 체육대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세종복지촌에서 실시된 1부 기념행사에서는 우수 종사자 및 이용인 표창과 직원들 및 자원봉사자들의 장기자랑으로 분위기를 한층 무르익혔으며, 이에 화답하듯 그동안 같고 닳았던 이용인들의 핸드벨 공연으로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2부 행사에서는 세종복지재단 산하 기관 직원 및 이용인,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함께한「제2회 하나되기 체육대회」가 실시되었습니다. 대회 명칭처럼 장애의 유·무, 성별·나이와 관계없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서 본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하여 신순식 군위군 부군수님을 비롯한 군위군청 및 관계기관의 여러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이기는팀 우리편~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장애인의 날을 축하해요~



선생님들의 변신은 무죄!



자원봉사자분들의 다과 준비



한 쪽의 그림을 보는 것 같네요



점심은 맛있는 뷔페~



드디어 시작된 체육대회!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세종복지촌
 식구들...
 청군 백군으로 나뉘어 열띤 응원과 함께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껏 뛰고 외치며 파이팅을
 외쳐봅니다.



세종복지촌의 걸스(?)데이~ 공연



분위기 띄우는데는 역시 트로트지***



작업장 파이팅~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서~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최선을 다한 우리 모두! 화이팅!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협력해서 공 튀기기, 고무신 양궁 등 행사 참가자 누구나 쉽게 참여하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대회 중간에 행사의 흥을 돋우는 멋진 댄스팀과 우리 선생님들의 공연으로 체육대회 분위기는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이기고 지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에 행복합니다.

‘하나되기’라는 대회 명칭처럼 세종보호작업장과 세종복지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오늘처럼 항상 서로를 믿고, 돕고, 의지하는 하나 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종복지재단은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이용인이 함께하는 장애체험, 장애인식개선 등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들이 사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핑크빛처럼 화사한 하루였네요~



내년에 또 함께 해요***

평창의 감동 제1부

2018평창! 우리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평창에 쏠려 있던 지난 2월 21일, 세종복지촌에서는 「2018 평창! 우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주제로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올림픽플라자 일원에서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올림픽 메인스타디움이 있는 올림픽플라자 일원과 슬라이딩센터를 방문하여 봅슬레이 경기 및 메달 수여식 등을 관람하는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참여활동을 통해 이용인들에게 동계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즐거움을 제공하였습니다. 때마다 평창을 방문했던 날은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5,000미터 계주 금메달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기세를 올렸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나라 선수단의 선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쇼트트랙 대표팀의 감동을 뒤로하고 이어서 방문한 올림픽슬라이딩센터에서는 여자봅슬레이 결승전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한 선수들의 땀과 노력을 함께 응원하며 어느 덧 대회 13일 째에 접어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열기 속에서 우리는 세계인의 축제에 잠시나마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키점프대를 배경으로



금강산도 식후경~



불꽃 보이시죠~성화대입니다



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함께



단체 기념사진



welcome 평창!



올림픽슬라이딩 센터로 고고고~



빨리 경기 보고싶어요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찻각



여기는 봅슬레이 경기장입니다~

평창의 감동 제2부

2018평창 장애를 넘어 하나된 열정

세중복지촌은 지난 3월 18일 「2018평창 장애를 넘어 하나 된 열정」이라는 주제로 평창을 찾아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막식을 관람하였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용인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응을 통한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익숙하게 되고 비장애인인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며, 적절한 관계를 맺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폐막식을 찾은 이용인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의 의지와 열정을 다시 한 번 응원하며 세계인의 축제 현장을 생생하게 즐겼습니다. 평창패럴림픽 관람을 통해 열정과 노력으로 한계를 극복한 선수들을 보며 우리 이용인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중복지촌은 이용인들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메인 스타디움을 배경으로



비가 오는 날씨! 하지만 너무 즐거운 오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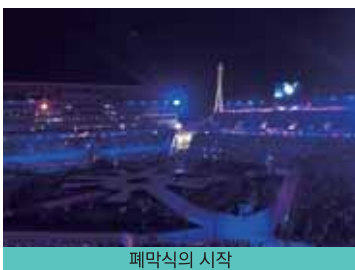
이제 폐막식 보러갑니다



반다비와 함께



이젠 추억으로 남을 평창의 겨울



폐막식의 시작



함께 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오늘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활동

생활체육

세중복지촌은 2017년부터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하여 매주 금요일 '보치아' 레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치아는 표적구와 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하여 승패를 겨루는 경기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정식 종목입니다. 매주 금요일이 되면 우리 이용인들은 강사님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주 1회 방문하시는 장애인생활체육 전문강사님은 보치아의 기본기 및 진행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줍니다. 보치아 레슨은 두 팀로 나누어 게임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게임형식의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해 이용인들의 흥미와 참여도가 높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집중력 및 협동심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세중복지촌 보치아팀이 지금처럼 열심히 연습한다면 언젠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경기대회에 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경북장애인체육회 강사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자! 아자! 아자!



누구 공이 더 가까울까요?



우리는 세중 보치아 클럽!



경기에 집중! 강사님께 집중!

지역사회 봉사활동



봉사활동 후 기념촬영



오늘의 봉사활동에 대한 안내



요양원 복도를 깨끗이 청소^^



분리수거도 열심히 합니다!



화장실 청소도 깨끗이^^



어르신들 생활관도 쓸고 닦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이라고 하면 대부분 비장애인들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행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 세중복지촌의 이용인들은 다른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하여 받기만 하는 봉사가 아닌 함께 나누는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매달 인근 지역의 요양원을 방문하여 청소, 빨래, 안마, 노래부르기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감사히 받았던 사랑을 다시 되돌려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술활동

2017년 다빈치미술학원의 재능기부로 시작된 미술활동 프로그램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술학원을 직접 방문하여 숨겨진 재능을 적극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미술작품을 만들어 보면서 감정정화를 바탕으로 창의력과 사고의 증진을 통한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완성된 작품을 외부 전시회에 출품하여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껴봄으로써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도움을 주어 이용인들의 개별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사님과 함께 기념촬영!



오늘 수업은 뭘까요?



손가락 끝에 집중^^^



짜잔~나만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하는 시간!

자립생활지원



국립중앙박물관에 왔어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용인들이 부모와 가족과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속에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인이 스스로 지역사회에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세종복지촌에서는 자립생활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1월 14일 ~ 15일까지 이틀 간 서울을 방문하여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을 순회하는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여 진행된 본 프로그램은 국립중앙박물관, 롯데월드타워, 경복궁 등 우리나라의 명소를 찾아 복잡한 사회 속에서 스스로 참여하고 판단하고 문제를 해결해 봄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리고 통합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광화문 수문장 교대식 관람




우리도 스타벅스 커피한잔의 여유를 즐겨요

자원봉사자와의 만남



세종복지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수경 

안녕하세요. 저는 효령고등학교 2학년 박수경입니다.



세종복지존

요즘 학생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박수경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학원에 가거나 게임을 하는 친구, 여행을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종복지존

네~그렇군요. 학생들 모두 바쁘게 지내고 있네요. 그럼 박수경 학생은 여가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나요?


박수경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책을 읽기도 하고, 요즘에는 인예은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효령고등학교 학생들과 봉사동아리를 만들어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습니다.



세종복지존

봉사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박수경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특수 교사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뿐만 아니라 봉사정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장애 학생을 도와주는 봉사를 하고 있었지만 그 것으로 끝이 아닌 여러 연령대와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봉사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세종복지존에서 자원 봉사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종복지존

박수경 학생에게 세종복지존이란?


박수경 

저에게 세종복지존이란, 특수교사라는 목표의식이 차츰 흐려질 때, 봉사로 다시 마음을 다잡게 해주고, 부당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소중한 곳입니다.



세종복지존

기관에서 제공하는 봉사활동 이외에 장애인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나요?


박수경 

평소 기관에서 청소나 장애인분들께 말벗이 되어드리려는 봉사를 했었는데 요즘엔 날씨가 따뜻해져서 같이 산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요리나 책읽기와 같은 체험활동도 봉사자들이 함께 도와주며 같이 해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세종복지존

박수경 학생의 꿈은 무엇인가요?


박수경 

장애학생이 조금 더 사회에 적응하고, 함께 어울려 갈 수 있는데 필요한 공부나 예절 등을 가르치는 특수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세종복지존

마지막으로 세종복지존으로 5행시 한번 지어줄 수 있나요?

박수경 

세: 세상에는
중: 중요하고 소중한데 생활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 복지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지: 지금 보다 더 발전 되고 향상되어야 한다고
촌: 촌(시골)에 사는 한 여학생은 생각합니다.

후원자와의 만남

후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

성주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효진 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 알게 되어 유니세프라는 곳에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지인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장애인시설 이라는 곳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중매체에서 좋은 소식 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을 많이 접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작은 금액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후원자 김효진

후원을 하면서 느낀점

후원을 시작하면서 부터 길을 가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면 피하기보다는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 불행할거라는 철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었기에 적응이 잘 안되기도 하였습니다. 일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많이 접하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칠 때가 있는데 비장애인들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에 나 역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장애인들 역시 우리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같이 생각한다면 장애를 이용한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앞서 말씀드렸듯이 후원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후원자로서 장애인,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다가갔다면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로서 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어렵겠지만 계속 노력한다면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거창한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걸음씩 다가가다 뒤돌아 봤을 때 내 자신이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주변 지인들에게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후원 및 자원봉사가 사회복지기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장애인시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세종! 교육 이야기



2017. 11. 21. 윤리교육

「사회복지법인 해솔」서은주 대표이사님을 초빙하여 직장인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와 청렴에 대하여 배우고 토론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세종복지재단 임직원들은 기본윤리를 지키며 더욱 청렴하게 생활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 3. 20. 성희롱 예방교육

「기통찬 가족심리 연구소」최경희 강사님을 초빙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 하였습니다. 우리 세종복지재단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직장에서의 바람직한 양성평등 실현과 건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8. 4. 26. 직원 인권교육

「마음그림 심리상담센터」권내영 센터장님을 초빙하여 인권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NO MORE! 장애인 학대는 이제 그만! 주제로 진행된 본 교육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학대, 차별, 폭행등 문제점들을 짚어보며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고, 장애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세종복지촌에서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 하였습니다.

실제와 같은 모의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숙지하여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훈련에 진행하였습니다.



불이야!하는 소리에 모두 맨발로 뛰어나와 화재상황에 따라 옥상 또는 시설외부로 신속하게 대피 하였습니다. 실재를 가정한 이번 훈련에서 화재 상황에서의 대피 시 젖은 천을 이용하여 기관지 보호, 방독면 착용, 자세 낮추기등 평소 교육을 통해 배웠던 내용들을 진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훈련을 위해 의성소방서에서 특수차량 진입로 확보 및 굴절사다리차를 이용한 대피훈련을 도와주셨습니다.

직원과의 만남



기획행정실장 조원호

인연

‘인연’이란 단어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게 사랑스런 이용인들과 그리고 항상 우리 이용인들을 보살펴 주시는 선생님들과의 첫 만남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4년 7개월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네요. 함께 생활하며 나들이도 가고, 산책도 다니며 즐겁게 지내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처음 이 곳을 들어설 때 모든 것이 낯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설레임반 걱정반으로 시작된 만남은 하루하루 지나면서 모든 이용인들이 환영해주고 편안하게 대해 주었기에 웃으며 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인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마음을 열고 소통하며 그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이분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중복지촌 이용인들과의 첫 만남이 이렇게 웃음으로 시작되어 지금도 하루하루 즐거운 나날을 보내며 그 과정 속에서 추억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은 입소자가 없어 텅 빈 생활관을 바라만 보다가 인천예림원에서 권오숙 씨가 우리 가족이 되면서 했던 말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실장님 우리 잘 지내봐요’ 라는 말 한마디에 한없는 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항상 듬직한 모습을 보여준 재영씨, 몸은 불편 하시지만 웃으며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철씨, 귀염둥이 상준 씨, 얼마 전 새로운 가족이 된 막내 현철 씨 여기에 다 소개하지 못한 우리 세중복지촌의 식구들. 우리 모두 오늘처럼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만남이 소중한 인연이라는 믿음을 고이 간직하며 세중복지촌 !! 가족여러분 모두 ♥합니다.



생활재활교사 김효정

앞으로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중복지촌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는 신입 사회복지사 김효정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기회가 생겨 처음으로 입사하게 된 곳이 세중복지촌입니다. 사회생활이 처음이었던 저로서는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봉사과 실습을 하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저를 꿈꾸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그 이후로도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첫 발을 내딛을 때에는 사회인으로서의 제가 어색하기도 하고 뭘 해야 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고 실수도 하였지만 진심으로 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와 이용인의 관계이기 보다 친한 친구 때로는 언니 동생 같은 편안한 마음을 공유하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 걱정 보다 빠른 시간에 적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세중복지촌 이용인들과 같이 생활하며 이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편함과 부족함 없도록 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앞에 서서 따라오라고만 하는 사회복지사 보다는 옆에 서서 같이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겠습니다.

족부인솔로 지키는 발 건강



족부인솔이란?

정확한 의료적 검사 및 진료를 통해 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발의 모양을 정밀하게 캐스팅도구로 찍어내어 인체공학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계, 제작하여 관절, 근육등이 제자리를 잡아 척추의 바른 정렬을 유지하게 해주는 치료용 보조기입니다.

인솔이라고도 부르며, 평발, 아치가 높은 분들, 그리고 족저 근막염을 가진 분들이 착용하면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발의 변형은 운동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교정 깔창(인솔)을 착용하여 보조해주어야 합니다!
척추의 변형을 막고 건강한 자세를 만들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해요~



2017. 11. 안동엠트레이닝 센터(센터장 임진수)에서 저희 시설에 방문 하셔서 이용인들을 대상으로 족부를 검진하여 필요 하신분들에게 족부인솔 제작을 도와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용인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용인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세종복지촌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일할 권리와 자립생활에 앞장서는 "세중보호작업장"

세중보호작업장 이용장애인 생일 축하 자리 마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세중보호작업장은 작업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직업을 갖기 위한 기초 능력 훈련뿐 아니라, 일상의 기본 생활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일상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매월 이용 장애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작업장 이용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어울림 속에서 동등한 인격체로서 대우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음으로 세상에 태어남과 살아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쁨을 함께 나누면 배가 뭉에 대해서도 경험하며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에서 세중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난 구정 명절, 군위군에서는 세중보호작업장을 찾아 작업장 이용 장애인에게 풍성한 선물과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조금 몸이 불편하고, 조금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세상을 통해 '차별'을 알게 되었고, 그 '차별'된 시선으로 인해 어깨를 움츠리며 살았던 작업장 이용 장애인들은, 자신들을 향한 낮은 이의 따뜻한 시선이 다소 어색했지만, 그 관심으로 인해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받은 관심과 나눔으로 인해 세상을 향해 당당히 어깨 펴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세중보호작업장 이용 장애인들은 군위군에서 지원해주신 상품권으로 음식점과 카페를 방문하여 자신들의 욕구와 권리에 따라 음식을 주문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연습을 해 보면서 사회 어느 자리에 가셔든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훈련과 자신들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 나눌 수 있는 훈련을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업장 이용 장애인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여 주신 군위군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군위우체국에서 이용장애인 티셔츠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2018년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세종복지재단은 4월 19일 목요일, 군위군민회관에서 「장애인 의날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을 위해 군위우체국 행복나눔 봉사단에서는 대회에 참여하는 세중보호작업장 이용 장애인들에게 단체 티셔츠를 후원하며, 작업장 이용 장애인들이 대회에 참여하여 단합과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습니다. 통일된 단체복을 착용하고 대회에 참여한 세중보호작업장 이용 장애인들은 체육대회 순서 및 각종 종목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대회 최종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세중보호작업장을 꾸준히 방문하며, 계절에 따라 제초작업과 야외 프로그램 동행, 그리고 일상 생활용품 지원 등의 다양한 후원을 끊임없이 제공해 주신 군위우체국 행복나눔 봉사단은 이제 세중보호작업장 이용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나눠주시는 군위우체국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중보호작업장 후원 & 자원봉사 소식

나눔을 실천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후원자 현황 (2017. 11. ~ 2018. 4.)

♥ 물품 후원

군**청, 김*정, 류*성, 세****단,
하*민, 제**업, 군***국, (주)
민***씨

♥ 금품 후원

강*안, 강*영, 김*숙, 김*애, 김*철, 김*억, 박*준, 박*호, 배*숙, 배*조, 새**
국, 이*태, 지*욱, 한*상, 권*민, 김*태, 김*섭, 김*천, 김*수, 김*선, 동**구,
문*경, 박*하, 배*한, 신*기, 우*량, 이*화, 이*용, 이*현, 이*재, 이*암, 이*
영, 이*훈, 장*, 전*식, 최*분, 최*성, 한*주, 홍*희, 홍*근, 황*용, 황*미, 김*
우, 김*정, 김*덕, 허*중, 김*희, 경**회, 권*협

♥ 후원금 내역

(2017. 11. ~ 12. 기준)

세입	지정후원금	0원
	비지정후원금	1,187,000원
합 계		1,187,000원
세출	직접비	3,027,080원
	간접비	0원
합 계		3,027,080원

(2018. 1. ~ 4. 기준)

세입	지정후원금	357,440원
	비지정후원금	1,481,000원
합 계		1,838,440원
세출	직접비	6,850,269원
	간접비	1,200,000원
합 계		8,050,269원

자원봉사자 현황 (2017. 11. ~ 2018. 4.)

♥ 개인

박*름, 최*영, 박*순, 안*훈, 김*언, 노*열, 신*섭, 한*훈, 김*원, 유*민, 김*근, 전*희

♥ 단체

경*****터, 군***청

※ 후원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누락되어진 분이 계시다면, 기관으로 연락주시면 다음호에 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복지촌 후원 & 자원봉사 소식

나눔을 실천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후원자 현황 (2017. 11. ~ 2018. 4.)

♥ 물품 후원

주)민***씨, 공*숙, 군**청, 군***국, 군****회, 군***교, 김*식, 김*경, 봉*숙, 서*미, 서*순, 심*숙, 오****달, 이*두, 이*현, 제**업, 조*훈, 홍*규, 희***미, 대*****군*****회 군*장 신*남

♥ 금품 후원

강*성, 강*훈, 국**행, 김*영, 김*주, 김*회, 김*수, 김*숙, 김*국, 김*숙, 김*옥, 김*정, 김*정, 김*진, 농**행, 대**행, 박*순, 박*욱, 박*진, 박*호, 배*한, 봉*숙, 서*경, 서*영, 서*대, 서*주, 서*순, 서*준, 성*주, 손*성, 신*하, 신*민, 심*숙, 심*섭, 안*호, 안*숙, 예*엠, 유*호, 이*향, 이*홍, 이*경, 이*두, 이*현, 이*나, 이*배, 이*은, 이*영, 이*화, 이*정, 임*중, 임*엽, 장*환, 정*진, 장*경, 조*호, 차*우, 최*윤, 최*용, 경****원, 황*지, 황*대

♥ 후원금 내역

(2017. 11. ~ 12. 기준)

(2018. 1. ~ 4. 기준)

세입	지정후원금	2,000,000원
	비지정후원금	7,838,030원
합 계		9,838,030원
세출	직접비	2,461,054원
	간접비	138,120원
합 계		2,599,174원

세입	지정후원금	4,000,000원
	비지정후원금	2,800,000원
합 계		6,800,000원
세출	직접비	962,690원
	간접비	258,710원
합 계		1,221,400원

자원봉사자 현황 (2017. 11. ~ 2018. 4.)

♥ 개인

강*나, 강*모, 강*주, 강*원, 권*진, 권*재, 권*성, 권*정, 김*연, 김*은, 김*이, 김*리, 김*애, 김*한, 김*지, 김*호, 김*열, 김*지, 김*빈, 김*태, 김*우, 김*수, 김*자, 김*우, 김*환, 김*원, 김*경, 김*인, 김*아, 김*자, 김*진, 김*삼, 문*순, 민*수, 박*현, 박*영, 박*연, 박*경, 박*련, 박*민, 박*민, 박*표, 박*현, 배*수, 배*혜, 백*영, 서*재, 서*영, 서*진, 서*진, 서*연, 손*원, 손*리, 손*민, 손*윤, 손*빈, 손*명, 신*식, 안*라, 안*숙, 오*림, 윤*연, 윤*민, 이*화, 이*빈, 이*진, 이*미, 이*환, 이*미, 이*민, 이*환, 이지영, 이*원, 이*옥, 이*준, 이*빈, 이*영, 장*정, 장*진, 전*수, 전*태, 전*우, 정*화, 정*은, 최*연, 최*준, 탁*준, 홍*권, 황*수

♥ 단체

희***미, 군***교, 군****교, 우****실, 효*****교

※ 후원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누락되어진 분이 계시다면, 기관으로 연락주시면 다음호에 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및 협력기관

군위농협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128

☎ 054-383-2981

농협하나로클럽

군위점

경북 군위군 효령면 경북대로 2185-1

☎ 054-380-5500

디자인 Book소리

경북 안동시 감나무3길 42

대표 김혜옥

054-856-7114

(주)민속엘피씨

경북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4052

대표 권혁수

054-380-3300

화본마을

경북 군위군 산성면 산성가음로 72

054-382-3361

홈마트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41

대표 조유라

☎ 054-383-5002

파워식자재 마트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75

대표 이정화

☎ 054-382-1237

K-마트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142

대표 전해영

☎ 054-382-0440

LS엠티론

경북 구미시 3공단2로 238

054-710-5702

NH농협은행

군위군지부

경북 군위군 군위읍 중앙길 109

☎ 054-383-2881

NH농협은행

군위군청 출장소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0

☎ 054-383-4339

태암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경화당한의원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3길 27

이사장 이광훈

이곳은 여러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 이 기관들은 본 시설에 후원 및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사업체입니다.

계재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무료로 게재해 드립니다.

세중복지촌의 든든한 응원자가 되어주세요!!!

♥ 후원방법

- 자동이체 : 주거래 은행에서 세중복지촌 후원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C M S : 금융결제원에 출금을 외뢰 하는 방법으로 CMS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직접 은행에 나가는 불편함 없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접수 : 직접 내방하셔서 후원하시는 방법입니다.

♥ 후원계좌

- 농 협 : 301-0135-8298-51 (세중복지촌)
- 대구은행 : 505-10-147128-6 (세중복지촌)
- 국민은행 : 638101-04-178059 (세중복지촌)

♥ 후원물품을 기다리고 있어요!

- 생 필 품 : 샴푸, 바디워시, 비누,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바디로션, 휴지 등
- 가 전 : 세탁기, 전자레인지, 오디오, 청소기 등
- 가 구 : 쇼파, 식탁 등
- 기 타 : 운동기구(런닝머신 등), 간식(과자, 음료, 과일 등)

♥ 보내주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